인구변동과 제주 여성의 삶*

이창기(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Ⅰ.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인구

제주도의 인구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자료는 대체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작성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에도 매 3년마다 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통계가 작성되고 있지만 당시의 호구조사는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각종 역역(力役)과 공납(貢納)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많고 특히 연령기록이 부정확하여 전체 인구규모나 인구구성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창기, 1999:230-245).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인구는 당시의 행정기관이 매년 발표한 통계자료와 국세조사 자료를 통해서 대체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통계연보의 형태로 매년 발표한 것으로 1914년에 간행한 『전라남도제주군세일반(全羅南道濟州郡勢一斑』과 1937년과 1939년에 간행한 『제주도세요람(濟州島勢要覽』(이하 『도세요람』라 한다)이 남아있다. 이 자료는 인구뿐만 아니라 기후와 지리, 교통통신, 교육, 종교, 경제 등 제주도 관련 모든 자료를 망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구에 관한 여러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1913년부터 1938년까지(1914년과 1915년 자료는 확인 불가)의 제주도 인구의 변화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매년 연말의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조사해서 보고한 것으로 인구분야에만 집중해서 조사요원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특히 경찰조직을 통해서 여러 영역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연도마다 통계가 들쭉날쭉하여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국세조사 자료는 1925년부터 시작해서 매 5년마다 5의 배수가 되는 해에 시행된 인구센서스 자료로서 현재인구원칙(de facto)에 의해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이다.[1] <표 1>에 의하면 『제주도세요람』의 자료와 『국세조사보고서』 자료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2]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인구는 대체로 20만 명 전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

* 이 글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기획한 『제주여성사Ⅱ:일제강점기』에 수록할 논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원문이 간행되기 전에는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1944년에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의 수행을 위한 국민동원을 위해 한 해 앞당겨 5월 1일을 기준으로 서둘러 시행했지만 패전으로 인해 정식 보고서가 간행되지 못하였고, 1949년에는 광복 후 새 정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 해 앞당겨 5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했지만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역시 정식 보고서가 발표되지 못하였다.

2) 이러한 차이는 두 자료의 조사기관이 서로 다르고 조사원칙이 상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세요람』의 자료는 상주인구원칙(de jure)에 의해 집계한 것이고, 『국세조사』의 자료는 현재인구원칙(de facto)에 의해 조사 시점의 현주인구를 집계한 것이다.

<표 1>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인구추이

연도	한국인			
	총인구	남	여	성비
1913	187,996	92,792	95,204	97.5
1916	202,072	99,457	102,615	96.9
1917	204,415	101,374	103,040	98.4
1918	203,409	99,762	103,647	96.3
1919	201,006	98,973	102,033	96.6
1920	200,584	97,999	102,585	95.5
1921	199,677	97,834	101,843	96.1
1922	197,999	96,953	101,046	96.0
1923	209,018	104,044	104,974	99.1
1924	214,584	106,429	108,155	98.4
1925	204,314	95,280	109,034	87.4
1925	**(203,868)**	**(94,611)**	**(109,257)**	**(86.6)**
1926	209,841	101,033	108,808	92.9
1927	210,508	100,840	109,668	92.0
1928	204,420	98,956	105,464	93.8
1929	194,017	92,847	101,170	91.8
1930	198,304	92,938	105,366	88.2
1930	**(206,574)**	**(95,125)**	**(111,449)**	**(85.4)**
1931	193,610	91,410	102,200	89.4
1932	199,269	93,892	105,377	89.1
1933	188,509	87,868	100,641	87.3
1934	188,410	87,557	100,853	86.8
1935	197,543	91,412	106,131	86.1
1935	**(205,202)**	**(95,035)**	**(110,167)**	**(86.3)**
1936	195,278	91,308	103,970	87.8
1937	199,742	93,759	105,983	88.5
1938	202,241	94,817	107,424	88.3
1940	**(212,270)**	**(99,041)**	**(113,229)**	**(87.5)**
1944	**(219,888)**	**(101,341)**	**(118,547)**	**(85.5)**
1949	**(254,527)**	**(114,736)**	**(139,791)**	**(82.1)**

<자료>짙은 숫자는 각 연도 『국세조사보고서』.
기타 자료는『전라남도제주군세일반』(1914:8), 『제주도세요람』(1937:9~11, 1939:6).

인구현상은 출생과 사망이라는 자연적 현상과 이입과 이출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변동한다. 대체로 전통사회에서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서 급격한 인구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관찰하면 사망률보다는 출생률이 다소 높아서 전쟁이나 대기근, 전염병의 유행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인구는 30여 년 동안 20만 명 전후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표 1>을 자세히 관찰하면 오히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에 출생률이나 사망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인구정체 현상이나 인구감소 경향은 이동이라는 사회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Ⅱ. 인구이동의 추세와 이출인구의 특성

제주도는 토질이 척박하고 기후풍토가 열악하여 흉년이 잦고, 왜구의 침입과 각종 공납의 부담이 과중하여 섬을 떠나는 유망자(流亡者)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중기에 취해졌던 출륙금지령[3]은 제주도의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제주도민이 제주도를 떠나는 현상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시대의 인구이동이 주로 한반도를 향했던 것이라면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이 주요한 이동 대상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2> 일본도항자수

연도	도일자			귀환자			증감	누계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1926	15,862	11,742	4,120	13,500	10,029	3,471	2,362	28,144
1927	19,224	14,479	4,745	16,863	12,015	4,848	2,361	30,505
1928	16,762	11,745	5,017	14,703	10,100	4,603	2,059	32,564
1929	20,422	15,519	4,903	17,660	13,326	4,334	2,762	35,326
1930	17,890	12,029	5,861	21,426	15,175	6,251	-3,536	31,790
1931	18,922	11,635	7,287	17,685	12,152	5,533	1,237	33,027
1932	21,409	11,695	9,714	18,307	10,382	7,925	3,102	36,129
1933	29,208	15,723	13,485	18,062	12,356	5,706	11,146	47,275
1934	16,904	9,060	7,844	14,130	8,115	6,015	2,774	50,049
1035	9,484	4,327	5,157	11,161	5,986	5,175	-1,677	48,372
1936	9,190	4,739	4,451	11,095	6,037	5,058	-1,905	46,467
1937	7,484	3,917	3,567	8,004	4,267	3,737	-520	45,947
1938	8,979	4,780	4,199	8,972	4,767	4,205	7	45,954
계	211,740	131,390	79,540	191,568	124,707	18,822	20,172	

<자료>『제주도세요람』(1937:9~11, 1939:12).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제주도민이 도외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제로 병탄한 이후 일본이 중요한 이동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와 중국으로 이동한 도민의 수도 매우 많았을 터인데 한반도와 중국으로 이동한 자에 대한 통계는 따로 발표된 바가 없다. 일본으로 이동한 도민의 수에 대해서는 해마다 도항자 수를 집계하여 『제주도세요람』에 발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될 수 있는 정기항로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도항할 수 있는 방법이 폭넓게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제주도민의 이동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의 도외이출은 1922년 12월에 자유도항제가 실시됨으로써 한층 활발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이영훈 1989, 이창기 1999:74~75) 1930년대 중반에는 약 50,000명에 이르고 있다(<표 2> 참조). 이 숫자는 당시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약 1/4에 해당한다.

3) 『인조실록』, 7년(1629) 8월 13일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되자 비변사에서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정기 여객선을 이용하지 않은 도항자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계경제대공황의 여파로 일본 내의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여 도항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이영훈, 1989), 일제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시국이 어수선하여 도일자가 일시 줄어드는 듯한 경향이 보이지만 1940년 이후에는 태평양전쟁 발발에 따른 징병과 징용으로 제주도민의 도외이출이 한층 더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이창기 1999:77). 2차대전 중에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제주도민이 약 5만 명에 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제주도 1982가:871). 이리하여 1945년 광복 당시 재일 제주도민은 약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박용후 1976:176). 1944년 국세조사의 제주도 인구 약 22만 명과 비교한다면 재일제주도민의 수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약 45%에 해당한다. 일본 이외에 한반도나 중국지역으로 이출한 도민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들 또한 적지 않은 수였으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제 강점기 동안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제주도민이 제주를 떠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제주를 떠난 이출인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한반도와 중국지역으로 이출한 도민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으로 도항한 제주도민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출인구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이들의 연령이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생산연령층에 분포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생산연령층 중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많이 이출하였다는 점이다.

<표 3> 이출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1936년(재일제주인)			1938년(재일제주인)			1944(16개마을출가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0~ 9	2,750	2,167	4,872	3,255	3,046	6,301	85	57	142
10~14	6,111	4,032	10,143	4,683	3,815	8,498	40	44	84
15~19							272	82	354
20~39	18,145	7,947	26,092	14,418	10,592	25,010	1,036	120	1,156
40~49	2,749	1,410	4,159	2,126	1,609	3,785	161	14	175
50~54				1,375	1,049	2,046	18	6	24
55이상	662	535	1,197				25	5	30
계	30,372	16,091	46,463	25,839	20,111	45,950	1,637	328	1,965

<자료> 『제주도세요람』 (1937:20, 1939:14). 원자료의 일부 오기를 정정함.

1936년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만20세에서 54세에 이르는 연령층이 68.8%를 점하고 있고(제주도청 1937:22)[4], 1938년말 통계에는 만20세~49세 연령층이 62.7%로 집계되고 있다(제주도청 1939:14). 여기에는 10대 후반의 연령층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는데 1944년에 제주도 16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조사한 석주명의 보고에 의하면 가족을 떠나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외주자의 85.8%가 만15~49세에 분포되어 있다. 석주명의 이 자료에 15세~19세 연령층이 18%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36년과 1938년에도 15~49세의 생산연령층이 80%는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4) 원자료는 세는 나이로 집계되어 있어 1세를 조정하였음. 이하 동일.

특히 20세~39세 연령층에 55~6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출가자의 연령분포에 대해서 석주명은 『제주도수필』에서 '제주도의 출가가 청년기에서 극명하고 중년기에 들어서는 점차로 귀향하여 노년기에 들기까지는 거의 전부가 귀향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석주명 1968:193).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활발하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대량 이출은 곧 제주도 내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출인구의 연령분포가 15세~49세의 생산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더불어 남성 이출인구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 도항자 수를 집계한 <표 2>에 의하면 1926년부터 1938년까지 일본으로 건너간 전체 도항자 211,740명 중 남자가 131,390명(62.1%)으로 여자 79,540명에 비해 무려 51,850명이 많았다. 일제에 의해서 도항이 통제되기 시작한 1935년 이후에는 남성 도항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성비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지만 도항자가 비교적 많았던 1933년까지만 집계한다면 남성의 비율은 65.8%에 이른다. 1936년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민의 통계에서도 전체 46,463명 중 65.3%에 이르는 30,372명이 남성이었다. 이처럼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도민의 성별구성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의 두 배에 가까운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출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2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남성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나 중국 방면으로 이출한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일제강점기의 제주도민의 인구이동은 생산연령층의 젊은 남성들이 대거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러한 남성인구의 과다이출은 제주도내에 남성인구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여다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Ⅲ. 젊은 남자가 떠난 제주도의 여성의 삶

젊은 남성들이 대거 제주를 떠나는 대량 인구 유출은 제주도에 남아있는 도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여다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혼인시장이 교란되어 여성의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유배우율이 저하되어 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남성부재의 가정에서는 여성이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야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것이다.

1. 성비불균형과 여다현상의 심화

제주도는 옛부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구가 많은 '여다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란 직후 길운절(吉雲節)의 제주반란 음모사건을 위무하기 위하여 제주에 어사로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은 그가 제주에서 견문한 바를 기록한 『남사록(南槎錄)』(1628년간)에서 『지지(地誌)』 『남명소승(南溟小乘)』 『표해록(漂海錄>』 등을 인용하여 여자의 수가 남자의 세 곱이나 된다거나, 비록 거지라 할지라도 처첩을 거느리고 질병이 잇는 남자라도 여자 얻기를 많게는 7~8인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다(제주도교육위원회 1976:53~54).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원진(李元鎭)도 『탐라지(耽羅志』(1653)에서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김찬흡 외 2002:28).

이러한 기록들은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기술이라기보다는 항간에 떠도는 소리를 여과 없

이 전한 것으로 과장이 매우 심하지만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다는 당시의 정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비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질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남녀 중 어느 한 쪽 인구집단에 대량의 결손이 발생하는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인구이동은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선시대의 여다현상을 전하는 여러 문헌에서는 제주도에 여자가 많은 이유를 해난사고로 인해서 많은 남성이 희생된 때문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남성인구의 과도한 도외 이출이 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육지로 유망하는 자들이 많아서 부득이 출륙 금지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정황은 그만큼 인구 유출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제주를 떠나는 유망민들 중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4> 제주도의 연령별 성비추세(1925~1949)

	1925	1930	1935	1940	1944	1949
0~4	104.6	102.5	102.9	106.8	104.3	99.1
5~9	109.1	105.2	104.4	107.8	106.6	99.1
10~14	100.6	101.8	105.6	108.6	108.6	103.5
15~19	78.5	82.6	90.5	86.5	84.0	84.0
20~24	70.3	69.4	70.3	68.0	60.4	67.1
25~29	70.0	66.6	64.2	62.4	57.1	68.3
30~34	75.2	69.9	66.2	64.6	57.8	66.8
35~39	80.2	74.9	71.9	72.0	67.3	63.2
40~44	84.5	80.6	78.6	77.6	75.2	65.6
45~49	80.3	80.1	82.0	82.5	84.5	70.0
50~54	85.2	84.5	86.0	83.5	83.4	74.8
55~59	79.2	78.7	80.1	83.7	80.0	72.2
60~64	77.3	78.5	81.3	77.5	76.3	72.8
65~69	76.0	75.4	76.9	75.5	76.3	68.6
70~74	66.0	66.2	67.8	71.4	74.0	64.0
75+	57.8	57.6	58.7	63.6	63.7	55.5
全體	86.6	85.4	86.3	87.5	85.5	82.1
全國	104.7	103.6	103.1	101.1	99.4	102.1

<자료>각 년도 『국세조사 보고서』.

이러한 남성인구의 유출현상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촉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의 각 연도별 성비를 보면 일제 초기에 해당하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초반까지는 성비가 다소 낮기는 하지만 여성인구 100에 대한 남성인구의 비가 95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항로가 개설되고 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는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성비가 빠른 속도로 낮아져서 1920년대 후반에는 92~93 정도를 보이다가 1930년 이후에는 9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리하여 광복 직전인 1944년에는 85.5까지 낮아지고 있다. 이 시기에 제주도 내에서 남성인구의 결손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급격한 성

비의 저하는 남성인구의 과도한 이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남성이 제주를 떠나고 있는 <표 2>와 <표 3>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도를 떠나는 이출인구의 연령분포가 15세~49세의 생산연령인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지만(<표 3> 참조) 이 연령층에서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이출함으로써 제주도 내의 성비불균형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다. <표 4>를 보면 0~14세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자연성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15세부터 갑자기 성비가 낮아져 40대까지 낮은 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성비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내의 성비가 점차 회복되는 징후는 대체로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젊은 남성의 과다한 이출은 제주도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제주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낮은 유배우율과 출생률의 저하

젊은 남성의 대량 이출은 혼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시에는 비교적 조혼의 경향이 있어서 10대 후반부터 혼인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1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에 이르는 연령층의 남성들이 대거 제주도를 떠남으로써 이 연령층의 여성들은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표 5>는 제주도의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의 초혼연령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10대 후반의 유배우율이 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혼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20대에서도 제주도 여성의 유배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30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여성의 유배우율이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정상화되는 것은 대체로 40세 이후의 일이다.

<표 5> 연령별 여성의 유배우율

연령	1925		1935	
	제주	전국	제주	전국
15~19	42.3	71.5	37.1	61.6
20~24	88.4	94.4	90.0	94.7
25~29	89.2	93.6	92.8	96.6
30~34	88.0	91.6	92.8	95.1
35~39	85.5	88.1	90.5	91.9
40~44	80.8	81.5	86.8	86.3
45~49	74.1	73.6	80.1	78.6
15~49	76.7	85.0	80.9	85.6
사별(15~49)	7.5	7.3	6.4	5.5
이혼(15~49)	4.1	1.3	2.1	0.7

<자료>각 연도 국세조사자료(Kwon 1977:321~331)

유배우율은 사별률이나 이혼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사별률과 이혼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전체 혼인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제주와 전국 사이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아서 사별이나 이혼이 제주도 여성의 유배

우율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연령층의 여성의 유배우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당시 제주도에서 혼인을 하지 못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연령층의 남성들이 대거 제주를 떠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 없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제 강점기는 인위적인 출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다. 인위적인 출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통사회에서는 대체로 인구 1,000명 당 40명 전후의 출산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의 전국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수의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출산을 통제하는 피임의 방법이 보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출산을 통제하는 가족계획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표 6>을 보면 일제 강점기 중반의 제주도 조출생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조출생률이 높았던 몇 해를 제외하고는 인구 1,000명 당 30‰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930년대에는 20‰ 전후까지 떨어지고 있다. 젊은 남성들이 대거 떠남으로써 많은 제주도 여성들이 배우자를 맞이하지 못하고 그 결과 출생률도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

<표 6> 일제일제강점기 제주도의 조출생률(‰)

연도	제주도*	전국**
1925	34.87	42.8
1926	18.44	-
1927	27.58	-
1928	28.39	-
1929	40.83	-
1930	40.17	42.4
1931	31.23	-
1932	20.77	-
1933	22.50	-
1934	22.49	-
1935	19.68	42.4
1936	22.07	-

*제주도청 1937:15-16. 원자료에 남아 100명에 대한 여아의 비율로 산출되어 있는 것을 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의 비율로 환산하였다.

**국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김철의 추정치(김철 1965:73~74. 윤종주 1973:224에서 재인용).

3. 남성노동력을 대체하는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남성인구의 대량 이출은 여성의 혼인과 출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경영과 생업활동 등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아버지 없는 가정이 늘고, 남자 형제들이 줄줄이 집을 비우고, 남편마저 돈 벌러 바다를 건너간 사이 그들이 남겨둔 역할은 몽땅 척박한 제주 땅에 남아있는 여성들의 몫이 되었다.

제주도에는 전통적으로 가사와 농업생산에 여성의 노동참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성이 담당해야 할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 가옥이나 농기구 수리, 돌담쌓기, 지붕이기, 멍석이나 바구니 만들기, 밧줄이나 새끼꼬기, 거름내기, 촐베기, 밭갈이, 씨뿌리기, 마소관리와 우마차운행 등등 비교적 힘든 일은 대체로 남성이 담당하는 역할이었고, 띠를 베거나 농경지의 풀치기, 물건이나 농작물 져 나르기, 수확과 타작, 연료채취, 밭갈이 후의 흙덩이 부수기 등은 여성도 참여하지만 남성도 여성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역할

영역으로 인식되었다(최재석 1979:65~73). 그러나 남성이 떠난 가정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여성들이 전담하거나 역할참여의 수준을 높여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생계를 위해서 여성들이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모습들은 농업생산 이외에서도 나타난다. 삯바느질이나 행상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거나 종전에 하지 않던 물질을 새로이 익혀서 잠수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에 제주 여성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고달픈 삶의 여정은 이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생애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6).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주여성의 강인한 생활력이나 높은 노동참여율은 척박한 토질과 열악한 기후풍토를 이겨내기 위한 '도전의 메카니즘'(이창기 1999:288)에서 형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하여 남성이 떠난 자리를 여성의 몸으로 대신하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내면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Ⅳ. 재일 제주여성의 삶

남성이 대량으로 제주를 떠난 이후 고달픈 삶을 영위했던 것은 비단 제주에 남아있는 여성들만이 아니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산업화의 길에 들어선 일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제주를 떠난 재일 제주여성들 또한 언어소통의 장애와 민족차별, 열악한 직업환경과 저임금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재일 제주여성들의 생활상에 대한 소상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제주도세요람』이 전하는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1. 낮은 교육수준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은 학업을 위해서 도일한 극소수의 유학생을 제외하면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점에서는 제주도 출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36년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된 46,000여 명의 재일 제주인을 대상으로 교육정도를 조사한 <표 7>에 의하면 보통학교 정도의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고 2/3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무교육자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교육수준이 낮아서 무교육자 비율이 남성은 52% 정도인데 여성은 무려 88%에 이르고 있다. 서당수학을 통해서 약간의 문자교육을 받은 경우도 남성의 35.7%에 비해 여성은 6.9%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문자해독은 물론 언어가 상이한 일본사회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당시의 고달픈 삶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이들은 방직공장과 실발공장 등에서 여공생활을 했는데 감독이 쉬지 않고 감시하기 때문에 만약 실이 끊겨 우물쭈물하면 용서없이 주먹이 날아오고 머리카락을 끄집히고 얻어맞는 그런 날의 연속이었다. 공장의 식사는 보리를 20~30% 섞은 외미로 지은 밥과 된장국, 단무지 등이었는데 조리과정이 엉망이어서 마치 돼지죽을 연상케 했다"(제주도청 1993:1407)

<표 7> 재일 제주인의 교육정도(1936년말 현재)

	무교육	서당수학	보통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대학졸업	계
남	15,731 (51.8)	10,853 (35.7)	3,608 (11.9)	159 (0.5)	13 (0.0)	9 (0.0)	30,373 (99.9)
여	14,186 (88.2)	1,110 (6.9)	783 (4.9)	12 (0.1)	-	-	16,091 (100.1)
계	29,917 (64.4)	11,963 (25.7)	4,391 (9.5)	171 (0.4)	13 (0.0)	9 (0.0)	46,464 (100.0)

<자료>제주도청, 1937:24.

2. 열악한 직업환경과 저임금

교육수준이 낮고 언어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여성들이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힘들고, 위험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단순노동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임금 또한 저급한 수준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6년말 현재 재일 제주여성 16,091명의 직업분포를 소개한 <표 8>에서 이러한 정황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표 9> 재일 제주여성의 직업분포(1936년말 현재)

방적	고무공	재봉	상업	해녀	성냥공장
4,565	1,756	1,183	1,136	1,093	945
자유노동	초자	법랑	인쇄	메리야쓰	세루로이드
835	750	711	663	410	390
에나멜	철공	염색	기타		계
277	197	159	1,021		16,091

<자료>제주도청, 1937:22~23.

<표 9>를 보면 섬유산업이 산업화를 주도하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듯 방적공장에 취업한 여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고무공장, 재봉, 상업, 해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상업은 행상이나 소규모의 구멍가게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 해녀는 70% 이상이 대마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선주가 해녀를 모집하여 집단으로 합숙하면서 작업을 하는 열악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직업들도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고된 삶을 짐작케 한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데 있어서도 일본인들보다 낮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1923년에 오오사카시 사회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인이 하루 평균 2.20엔(최고 2.65엔, 최저 1.54엔)을 받는데 한국인은 하루 평균 1.54엔(최고 1.85엔, 최저 1.17엔)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도청, 1993:1408). 일본인 임금의 70%에 해당한다.

직종에 따라서 일당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근무할 수 있는 일수도 달라서 한국인 사이에서도 한 달 총수입은 대략 20엔~40엔 정도로 서로 차이가 나고 있다. 당시 오오사카시의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남자 노동자의 한 달 하숙비가 19.5엔, 여자 직공의 한 달 기숙사비가 15엔 정도였으니까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겨우 숙식비만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박봉을 아껴서 저축도 하고 고국에 송금도 하고 있다.

직공으로 일하는 30세의 여자는 월급으로 28엔을 받았지만 기숙사비 15엔을 제하고 나면 13엔밖에 남지 않는데 이 중에서 10엔을 송금하고, 2엔을 저축하고, 잔금은 1엔만 남기고 있다. 잡비가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일한 것 이외에는 일체 바깥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배어나오는 명세서다.

제주도 출신 노동자들의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작업환경, 저임금, 민족적 차별 등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겪는 아픔이었지만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고달픈 현실을 이겨나가야 했다.

제3절.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는 삶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거나 고국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을 안 쓰는 방법밖에 달리 방도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생활의 결과 재일 한국인 노동자들은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말 재일 제주인의 질병상태를 보고한 『제주도세요람』에 의하면 각기병과 폐결핵, 소화기계통의질환과 위장병, 근막염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교민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각기병과 폐결핵은 영양부족에 의한 대표적인 소모성질환으로서 이러한 질환이 월등히 많다는 ▯ 많다재일 제주인의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 을 보여주는 ▯ 이며, 위장병과 소화기계통의 질환도 열악한 식생활질환과 위는 ▯ 이다. 과도한 노동에 의한 근막염도 다수를 점하고 있다. 성병에 감염된 환자의 수가 많은 것도 이들의 위생상태와 어려운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재일 제주여성의 질병

병명	남	여	계
각기병	506	400	906
폐결핵	328	273	601
위장병	130	163	293
소화기병	156	127	283
근막염	145	126	271
성병(화류병,임질)	143	70	213
기타	165	161	326
계	1,573	1,320	2,893

<자료>제주도청, 1937:23~24.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건강상태가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암시하게 한다. 당시 재일 제주인의 남녀 구성을 보면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데(<표 3> 참조) 질병자의 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두 배에 가깝다는 것이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궁핍한 생활이 재일 제주여성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던 것이다.

Ⅴ. 맺는 말

일제강점기의 한국사회는 총체적으로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별 가족은 이산의 아픔과 궁핍한 생활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비자발적이거나 강제된 이동에 의해 모든 국민들이 나락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제주여성의 고난에 찬 삶이 자리잡고 있다.

젊은 남성이 대거 제주를 떠남으로써 제주도 내의 성비가 더욱 낮아지고,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여성의 수가 급증하여 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남성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여성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게 되었다. 보다 나은 수입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여성들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된 노동, 궁핍한 생활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극도의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는 피지배 민족 모두에게 암울한 시기였지만 제주 여성들에게는 더욱 참담한 시련의 과정이었다.

<참고문헌>

김찬흡 외(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김철(1965),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박용후(1976), 『제주도지』, 백영사.

석주명(1949),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제주도인구론』, 서울신문사 출판부.

(1968), 『제주도수필』, 보진재.

윤종주(1973), 『인구학』, 한얼문고.

이수건(1973), 「조선초기 호구연구」, 『영남대논문집』 5.

이영훈(1989),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출판부.

전라남도제주군청(1914), 『전라남도제주군세일반』.

정약용, 『목민심서』 권6 호전 호적조.

제주도(1982가), 『제주도지(상)』.

(1982나), 『제주도지(하)』.

(1993),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교육위원회(1976), 『탐라문헌집』.

제주문화방송(1986), 『제주왕조실록 중 탐라록』.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6), 『살암시난 살앗주』.

제주도청(1937), 『제주도세요람』.

제주도청(1939), 『제주도세요람』.

조선총독부, 각 연도 『국세조사 보고서』.

최재석(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Kwon, Tai Hwan(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